

# 일본어 교육 관점에서의 유의부사 연구\*

- 「すぐに」·「直ちに」·「たちまち」를 중심으로-

김 영 아\*\*

(e-mail : larecancile@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2 객관성과 주관성                      |
| 2. 「すぐに, 直ちに, たちまち」의 개관  | 4.3 구어체와 문어체                      |
| 3. 「すぐに, 直ちに, たちまち」의 공통점 | 5. 한국어 시간부사 ‘곧’ ‘바로’ ‘즉시’의 의미, 용법 |
| 3.1 단 시간 내의 사태 실현, 성립    | 5.1 공통점                           |
| 3.2 선행 사태와 후속 사태의 필요성    | 5.2 차이점                           |
| 4. 「すぐに, 直ちに, たちまち」의 차이점 | 6. 일본어교육관점에서의 일·한 유의부사 비교         |
| 4.1 과정성과 연속성             | 7. 나가기와 이후의 과제                    |

キーワード：日本語教育(Japanese Education), 類義副詞(Synonyms of Temporal Adverb), 過程性(Process), 連続性(Continuity), 客観性(Objectivity), 主観性(Subjectivity)

## 1. 들어가기

일본어 시간부사에 대해 仁田義雄 (2002) 『副詞的表現の諸相』에서는 「〈起動への時間量〉—事態への取り掛かりまでの時間量, 事態が発生・実現するまでの所要時間量—」에 관여하는 부사를 「僅少所要型」·「中期所要型」·「長期所要型」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사태의 시작, 기동까지 필요한 시간 량이 지극히 적은 것을 나타내는 「僅少所要型」에는 「急に, 至急, 不意に, いきなり, やに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5756).

\* 원광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わに, 突然, 突如, 咄嗟に, 唐突に, だしぬけに, にわか, すぐ(に), じきに, 直ちに, た  
ちまち, さっそく, 即刻」(pp. 246-250) 등이 속해있다. 이 부사들을 유의어로 설  
명하는 것에는 森田(1994), 田·泉原·金(1998), 小学館(2003), 金(2008)이 있는  
데, 「いきなり」와 「突然」과 같은 대표적인 부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으나, 같은 부류에 있는 시간부사는 중심적인 의미에 대한 기술만 있을 뿐 의  
미 용법 전반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

이로 인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어 시간부사가 갖는 문체적인 특징,  
내포된 감정, 초점이 되는 차이 등의 의미, 용법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문법적 측면의 부사연구를 일본어 교육에 적용하여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한 단어의 의미와 함  
계 유의표현과 반대표현, 그리고 한국어로 그 의미를 확인해야한다. 근년 前田  
(2002), 葉(2004), 李(2007), 江(2013) 등에서 「すぐ(に)」와 「さっそく」,  
「あつと  
いう間に」와 「たちまち」등의 비교연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すぐ(に)」와  
같은 그룹에 속하며 유의어 관계인 「直ちに」와 「たちまち」와의 비교연구는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僅少所要型」(仁田2002)에 속하며, 유의어 관  
계의 특징을 보이는 「すぐ(に), 直ちに, たちまち」에 대해 실례에 근거하며 주  
변적인 의미, 용법 등을 포함하여 세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그  
의미·용법을 고찰한다. 둘째, 일본어 시간부사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시간부사 ‘곧, 바로, 즉시’에 대한 의미·용법을 일본어 시간 부사와 비교하여  
고찰한다. 셋째, 일본어와 한국어 부사를 대응, 비교 한 결과를 대응표로 작성  
하여 일본어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각 부사의 의미, 용법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어 예문의 출처는 朝日新聞(「聞蔵」) 검색(1985.01.01.~2012.03.20),  
현대소설(151작품)이며, 한국어 예문의 출처는 ‘한국어 말뭉치’(국립국어원), 조  
선일보(1985.01.01.~2016.03.01.)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1980.01.01.~2016.  
03.01.)이다.

## 2. 「すぐ (に)」 · 「直ちに」 · 「たちまち」의 개관

본 장에서는 현대어를 대상으로 각 부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본다.

<표1> 일본어 시간부사의 사전적 의미

辞書名	すぐ(に)	ただちに	たちまち
明鏡国語辞典 (初版)	時間の隔たりがないさま。時間を置かず。ただちに。	時間を置かないで物事を行うさま。すぐに。即座に。	物事がきわめて短い時間のうちになされるさま。瞬間に。すぐに。
岩波国語辞典 (第6第板)	時を置かず、ただちに。	時間を少しも置かずに。すぐ。	非常に短い時間で。にわかにかに。
集英社国語辞典 (第2版)	時間を置かないさま。ただちに。	時をおかずに。すぐに。	きわめて短時間に。すぐに。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세 부사는 어떤 일이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일어나는 모양을 말한다. 「すぐ (に)」 · 「直ちに」 · 「たちまち」는 유의어로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すぐ (に)」의 교체어로 「直ちに」를 들고 있으며, 「直ちに」의 설명에 「すぐ(に)」가, 「たちまち」의 설명에 「すぐ(に)」를 제시하고 있어 이 세 부사가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 부사는 어휘적인 의미는 근접하나 문체적인 면에서는 「直ちに」에 대해 『岩波国語辞典』에서는 「法令文では、「遅滞(じたい)なく」「すみやかに」にくらべて即時性がもっとも強い。」, 『小学館日本語新辞典』에서는 「硬い文章語」, 森田(1984)에서는 「「すぐ」が話し言葉的であるのに対し、「直ちに」は文章語である」, 田·泉原·金(1998)에서는 「ややかたい文章語で、公式な発言や報道などによく用いられる。」라고 설명하고 있어 문체적 차이점을 볼 수 있다.

## 3. 「すぐ (に)」 · 「直ちに」 · 「たちまち」의 공통점

### 3.1 단 시간 내의 사태실현, 성립

- (1) 「新聞で開催を知り、すぐに申し込んだ」という甲府市の団体職員河村厚夫さん(35)は、休暇を取って12日朝に上京。(朝日1990.04.16.朝刊)

- (2) 佐渡市が21日に発表した。死亡したのは3歳雄。20日午後2時ごろ、突然飛び立ってネットに衝突して地上に落下し、直ちに収容したが間もなく死亡が確認された。

(朝日2013.03.22.朝刊)

- (3) 昨年、糖度13以上を6個入り7000円、500ケース限定、「光センサーフルーツ」として売り出すと、たちまち売り切れた。

(朝日1991.08.22.夕刊)

(1)의 「「新聞で開催を知った」 선행 사태로부터 「申し込んだ」 라는 행위, (2)의 「直ちに」 는 「突然飛び立ってネットに衝突して地上に落下した」 사태로부터 「収容した」 행위, (3)에서 「たちまち」 는 「売り出す」 라는 선행 행위로부터 「売り切れた」 라는 사태가 각각 시간을 두지 않고 단시간에 일어난 행위, 사태를 나타낸다.

- (4) 4号機に何かあれば、私の事故シナリオであれ、ガンダーセン氏の事故シナリオであれ、もう手がつけられない。致死量を浴びる急性放射線障害によって、バタバタと人間が倒れてゆく事態である。東電も、真っ青になって震えながら、今度こそ「直ちに健康に影響が出ますから、すぐに遠くに逃げて下さい」と記者会見するはずだ。

(朝日2012.03.09.週刊朝日)

- (5) 国家による秩序がある間他人を恐れて暮らしていた人たちは、秩序がなくなったとたん、たちまち別の自生的な“秩序”を見いだす。

(朝日2011.02.06.朝刊)

(4)에서는 「ただちに」 가 방사선에 의해 「健康に影響が出る」 라는 사태가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며, 「すぐに」 는 선행한 일로부터 시간을 두지 않고 「遠くに逃げる」 라는 행동을 촉구한다. (5)에서는 「秩序がなくなった」 라는 선행하는 사태로부터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別の自生的な“秩序”を見いだす」 라는 자생적으로 질서를 찾아내는 사태가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예(6)은 세 부사가 근접해서 사용된 예로 선행 사태로부터 후속사태가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다.

- (6) 古くから人びとが求めた英雄は、毎日のように新たな英雄を見出さずにはいられない大衆の欲求(よっきゅう)によって、現代では英雄ではなく単なる有名人となり、テレビに現れては消費され、a.すぐに消えていくことになる。真の英雄がマスコミに取りあげられることはなくなった。ノーベル賞受賞者として、b.たちまち有名人の列に引きずりおろされ、  
c.ただちに忘れられていく。

(朝日2010.02.21.朝刊)

(6)a. 「消えていく」, b. 「引きずりおろされる」, c. 「わすれていく」 라는 사태가 단시간에 실현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거나, 끌어내려지거나, 잊혀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폭을 가진다. 즉 이 세 부사는 어떤 사태나 상황의 발생이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단 사태의 기동전부터 기동까지의 소요시간은 짧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의 폭을 가지고 있다.

### 3.2 선행 사태와 후속 사태의 필요성

(7) 除湿剤の原料は塩化カルシウムで、空気中の水分を吸ってできた溶液が容器内にたまります。この水溶液はアルカリ性で腐食性があります。…皮膚に付着した場合はやけどをする恐れがあるので、a. すぐに水でよく洗い流しましょう。/目に入った場合は、b. 直ちに流水で洗い流し、できるだけ早く医師に相談しましょう。

(朝日 2010.09.20.朝刊)

「すぐに」는 「よく洗い流す」는 후속 사태(행위)가 보습제의 수용액이 「皮膚に付着した」 선행 사태로부터 단 시간 내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며, 「流水で洗い流す」라는 후속사태가 「目に入った」라는 선행 사태로부터 시간을 두지 않고 일어난다.

(8) 南アは公用語が11もあるスーパー多言語国家であることを実感する。/…日本語を教えると、a. すぐに「こんにちは」ときれいな抑揚で発音する。…国中で共通に話すのは英語。大学の守衛をしているロジャーさん (46) は以前は高校で英語を教えていたと言った。ツォンガ語を母語に8言語を話すが、「英語を知っていればどこでも自分の家のように感じられる」と力説する目はまさに教師だった。/僕のつたない英語力をb. たちまち見抜き、「だからあなたも習った方がいい」。 (朝日2010.07.02.朝刊)

예(8)의 「すぐに」는 「日本語を教える」라는 선행사태가 일어나고 짧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きれいな抑揚で発音する」라는 후속 사태가 일어나며, 「たちまち」는 화자의 영어를 듣고 서툰 영어실력을 간파당한다라는 후속 사태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すぐ

(に) 」 · 「直ちに」 · 「たちまち」는 선행 사태와 후속하는 사태라는 두 시점이 필요하다.

## 4. 「すぐ (に) 」 · 「直ちに」 · 「たちまち」의 차이점

### 4.1 과정성과 연속성

본 장에서는 「すぐに」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9) 家に着くとすぐに雨が降り出した。(作文)
- (10) 雨が小止みになっているからすぐやむでしょう。(作文)
- (11) 彼が来たらすぐ起こしてください。(作文)

「すぐに」는 어떤 행위나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태가 성립했을 때 시간을 두지 않고 다음 행위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며, 그 기준이 되는 행위나 사태는 (9)의 「家についた」 완료 또는 과거, (10)의 「雨が小止みになっている」 현재, (11) 「彼が来る」 라는 미래시제와 같이 시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すぐに」가 「直ちに」와 「たちまち」로 교체 불가능한 예이다.

- (12) 入社してすぐに (×直ちに、×たちまち) バブル絶頂期が来た。  
(朝日2009.10.19.朝刊)
- (13) 「服が絞れるくらい汗をかいたかと思うと、すぐに (×直ちに、×たちまち) 電気毛布に入っても寒いぐらいの震えがくる。手術後はその繰り返しでした」  
(朝日2012.10.26 週刊朝日)

「すぐに」는 (12) 「入社する」, (13) 「服が絞れるくらい汗をかく」 라고 하는 선행 사태가 조건이나, 이유가 되어 후속사태인 (12) 「バブル絶頂期が来る」 와 (13) 「電気毛布に入っても寒いぐらいの震えがくる」 라는 사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 단독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 「たちまち」 또는 「直ちに」로 교체 불가능하다. 이는 前田(2002)에서 「すぐに」에 대해 「先行する行為・事態と後続するそれとの間に強い共起制限を持たない」 (p.3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 사태와

후속사태에 강한 공기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すぐに」는 사용 될 수는 있으나, 「直ちに」와 「たちまち」로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이 두 부사는 선행 사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すぐに」의 비교를 통해 「直ちに」와 「たちまち」는 선행 사태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たちま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レバーから急に手を離すと、たちまちブレーキがかかって止まる。なるほど、何かにびつくりして「あっ」と、ハンドルから手を離せばすぐに止まる仕組みになっているのだ。

(朝日2010.05.18.朝刊)

(15) (旅する人びと) 酷寒のロシア、氷点下45度体験／見出し

…と書いただけでは実感が湧かないと思うので、どういう現象が起きるかいくつか例を挙げてみると、まず、デジタル機器はまともに作動しない。ビデオカメラのバッテリーはあっという間に消耗してすぐにバッテリー上がりを起こしてしまう。…やがて酷寒の旅も終わり、仙台に帰ってみたら、雪が降っているのに暑くてかなわない。人間の順応力はたいしたもんだと感心しつつ、コートも着ずにそのへんを歩いていたら、たちまち風邪をひいてしまったというおまけがついたのにはさすがに参った、というより、実に間抜けでありました。

(朝日2007.12.05.朝刊)

「すぐに」와 「たちまち」는 (14)의 「-スルト, -スレバ」, (15)의 「-シテ, -シタラ」와 같이 조건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 사태를 기준으로 그 사태로부터 시간을 두지 않고 발생한 것을 나타내며, 공통적으로 사태의 기동전인 선행 사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행하는 사태로부터 순서·단계를 지나 하나의 사태가 기동(起動)하는 그 도중과정을 과정이라고 한다면 「たちまち」는 「すぐに」와 달리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 안에서 계기가 있는 과정성을 갖는다. 이에 대한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京野菜の代表格・水菜は、01年に県内で栽培が本格化したのをきっかけに、たちまち大ヒット商品になった。今では全国シェア 4 割を超す日本一の生産県だ

(朝日2008.02.18.朝刊)

(17) 新見市消防本部に現場付近の住民から119番通報があったのは午前0時19分。署員がかけつけた時はすでに、A容疑者方の木造2階建て住宅の屋根から大きな炎が上がっていた。出火当時、県北部に乾燥注意報は出しておらず、ほとんど風も吹い

ていなかったが、周囲に古い木造住宅が密集していたことから、たちまち燃え広がった  
という。 (朝日2008.03.03朝刊)

「たちまち」는 (16) 「栽培が本格化した」, (17) 「周囲に古い木造住宅が密集して  
いた」와 같이 변화의 개시 전 상황에 주목하여 선행한 일이 계기, 이유가 되  
어 과정 속에서 후속사태가 크게 변화함을 나타낸다.

즉 「たちまち」는 큰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사태변화의 계기가 있고 그로인해 짧지만 과정이 필요한 시간을 필요  
로 한다.

이어서 「直ちに」에 대해서 보도록 한다. 「直ちに」는 「すぐに」와 「たちまち」  
와 같이 이유, 조건문이 선행되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선행 사태가 성립하고 나서 다음 사태가 성립하기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짧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정도의 시간성을 가지며, 이로 인  
해 즉시성(即時性)이라고도 일컬어질 정도의 연속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18) 携帯電話の紛失、盗難には十分注意し、気づいたら直ちに、携帯電話会社の窓  
口と警察署に届け出が必要です。 (朝日2007.12.09.朝刊)

(19) 「不審物を発見した場合は、直ちに近くの係員にお知らせください」。  
(朝日2011.11.22夕刊)

(20) ただ、福島第一原発の事態収拾には時間がかかる。その決着を待たず、原発に依  
存してきた国のエネルギー政策を見直す議論を直ちに始めるべきだ。

(朝日2011.04.20. 朝刊)

「直ちに」는 선행 사태에 대해 지체 없이 (18) 「届け出る」 행위, (19) 「お知  
らせする」 행위, (20) 「議論を始める」 후속행위를 재촉하고 있다. 이와 같이 「直  
ちに」는 「一ベシ, 一ナケレバナラナイ, 一セヨ, 一テクダサイ」 등의 당연, 의무, 명령,  
요구와 같은 문말 표현과 공기해서 행위의 지체를 용서하지 않고 후속 행위를  
즉시 일으키는 연속행위에 주로 사용된다.

다음은 같은 내용에서 표제어에는 「すぐに」가, 기사에는 「直ちに」가 쓰인  
예이다.

(21) 飼い犬のふん「すぐに」片付けて 福岡県が条例改正 【西部】

犬が公共の場でふんをした場合、飼い主が直ちに片づけなければならない――。

(朝日2000.10.13.朝刊)

「飼い犬のふんをした」라는 선행 사태에 초점을 두고 다음 행동이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을 표제어에서 「すぐに」로 나타내고 본문에서는 선행사태로부터 지체 없이 「片付ける」라는 연속적인 행위인 후속행위에 초점을 두는 「直ちに」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 예이다.

(22) 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津波からの避難行動を内閣府などが被災者870人に面接調査したところ、揺れが収まった後すぐに避難した人は57.7% (4966人)にとどまり、41% (361人)は直ちに避難せずに家族を捜したり、一時帰宅したり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朝日2011.08.17. 朝刊)

(22)에서는 「すぐに」와 「直ちに」가 근접해서 사용된 예인데, 「すぐに」는 「避難した」라는 행위가 단 시간 내에 실현 한 것인데 그것은 「揺れが収まった後」 흔들림이 진정된 후라는 선행 사태의 성립에 주목하여 그로부터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直ちに」는 「避難しなかった」 피난가지 않았다는 후속하는 사태에 초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直ちに」는 이와 같이 후속하는 사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해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는 새로운 사태발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3) 放射性降下物が増加 文科省「直ちに健康に影響ない」/見出し

文部科学省は20日、上空からちりなどととも落下物に含まれる放射性物質の量を都道府県ごとに発表した。場所によって一時、放射性セシウムが通常の1千~2千倍あった。専門家は「直ちに健康に影響は出ないが、注意が必要」としている。

(朝日2011.03.21. 朝刊)

(23)에서는 「直ちに」가 「直ちに影響は(が)ない」, 「直ちに~ものではない」와 같이 부정을 동반해서 관용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방사성강하물로 인해 지금 당

장은 건강에 영향은 없지만 그 뒤에 바로 ‘주의가 필요 하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방사선양이여도 계속 쪼게 된다면 인체에 영향이 나타나는 ‘장래에는 위험’ 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4.2 객관성과 주관성

(24) 名古屋を過ぎた辺りで70歳の夫が「胸が苦しい」と言い出し、心臓の葉を口に入れたものの、すぐに気を失ってしまいました。(朝日2010.09.20. 朝刊)

(25) 雪かきは朝 4時半起きて、1日3回。7ヘクタールの敷地に除雪車を出し、計 7時間以上かかる。一日でも手を抜けば、すぐに除雪し切れないほど雪が積もってしまう。(朝日2012.01.05. 朝刊)

「すぐに」는 예(15) 「連絡を取る」라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 (24) 「失う」라는 무의지적 행위, (25) 「雪が積もる」와 같은 자연현상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다 또한 두 사태성립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폭넓게 사용한다. 특히 신문의 예를 보면 표제어에는 「すぐに」를, 같은 내용의 본문에는 「直ちに」를 사용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6) そろそろ限界… 野中広務氏が辞意、すぐに「却下」自民五役会議小沢首相と自由党の小沢党首が連立内閣の発足で合意した十九日夜の自民党五役会議で、野中務官房長官が辞意を表明していたことが二十日明らかになった。党五役が一斉に反対し、申し出はただちに却下された。野中氏は党首間で連立政権の基本合意が交わされた先月十九日の会見でも「私は自らけじめ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人間だ」と辞意を示唆していた。(朝日1998.12.21. 朝刊)

표제어에 「すぐに」를 사용하여 「野中広務氏が辞意」이라는 선행 사태에 초점을 두고 후속사태가 단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내용의 본문에서는 선행 사태로부터 지체 없이 「却下された」 연속적인 행위인 후속행위에 주목하는 「直ちに」가 사용된다.

(27) 夜勤明けで難を逃れた私たちは、直ちに救援隊を結成し工廠に向かいました。  
(朝日2003.08.06. 朝刊)

(28) …福井県にある高速増殖原型炉「もんじゅ」の事故では、自治体などへの連絡体制の不備が問題になったことから、学研都市内の研究施設で何か異常が起きた場合は、ただちに三町への連絡を求める要請文を九つある研究所に送った。  
(朝日1996.03.30.朝刊)

「直ちに」는 (27), (28)과 같이 주로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일으키는 동사와 공기(共起)하여 의지성을 갖는다. 또한 『現代副詞用法辞典』에 의하면 「直ちに」는 「しばしば好ましくない極端な事態に直結するという文脈で用いられ、切迫感の暗示がある。」(p.269)라고 설명하고 있다.

(29) 立川市の都営アパートで3月、95歳の母親と63歳の娘の遺体が見つかった問題を受けて、都とアパートを管理する都住宅供給公社は16日、入居者の安否確認の手順を見直したマニュアルを発表した。公社の担当者が合鍵で入室する判断基準を具体化し、緊急性が認められる場合はa.すぐに入室するようにした。/…見直しては、こうした基準をより具体化。「室内から異臭がする」「応答がないのにテレビが付きっぱなしだったり、郵便物や新聞がたまっていたりする上、入居世帯に障害者がいる」などに該当した場合、b.直ちに入室すると改めた。高齢単身者に限らず、あらゆる世帯を想定して対応することも盛り込まれた。  
(朝日 2012.04.17. 朝刊)

(30) 今月30日にオープン予定のトキ観察施設「トキふれあいプラザ」で、飼育中のトキ1羽が20日にケージ内側に張った防護用ネットに衝突して落下し、死亡した。……死亡したのは3歳雄。20日午後2時ごろ、突然飛び立ってネットに衝突して地上に落下し、a.直ちに収容したが間もなく死亡が確認された。…このトキは今月15、17日にもネットに衝突して落下していたが、いずれもb.すぐに立ち上がったため、そのままにしていた。  
(朝日2013. 03. 22. 朝刊)

(29)에서 a. 「すぐに」는 재검토된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b. 「直ちに」는 기존 매뉴얼보다 구체화되고 폭넓어진 기준에 따라 「入室する」행위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다. (30)에서는 그물에 충돌해서 낙하한 똑같은 상황이지만 b. 「すぐに」의 경우에는 낙하한 시점을 기준으로 「立ち上がった」사태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

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a. 「直ちに」는 두 번이나 그물에 충돌했던 일이 있고 세 번째 낙하한 것을 보고 즉시 「収容した」한 행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긴박함과 동시에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이어서 「たちま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いくら雪の景もこう苦しくはなさない。小池も小林も猿のような顔をして一言も声を出さない。そのうちに孝ちゃんが止ってこのさきに行っても風がひどいから帰りましょうといったので a.たちまち賛成した。後を見るといままです歩いてきた跡は b.たちまち吹き消されている。…やっと下ってきてもう僅かになったので、板倉はまっすぐに急なところを下りたのはいいが雪が深いから c.たちまち桜の木の側で倒れた。

(板倉勝宣『五色温泉スキー日記』)

「たちまち」는 b. 「跡が吹き消される」와 같이 선행 사태에서 후속사태로의 변화가 과정 속에서 급속하게 변화한 것을 나타내며 인간의 의지적 행위에는 쓰이지 않고 자연현상과 같은 상태 또는 사태의 변화에 주로 사용되는데, (31)의 a. c와 같이 인간의 행위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1, 2인칭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3인칭에 주로 사용 된다.

「たちまち」는 飛田・浅田(1994)에 의하면 「非常に短時間の中に事態が大きく進展する様子を表し、進展する前と後との状態が大きく変化する暗示がある」(p.271)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国広(1981)에서 「たちまち」와 「すぐに」의 차이로 「タチマチには「<ある結果をもたらす先行過程が予想以上に短い>ことを指し、かつそこに<驚き・感嘆>の念がともなっている」(p.150)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たちまち」가 선행 사태에서 후속 사태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상태로의 급 변화를 나타내어 의외성을 가진다.

(32) …学生らが1日、J R三島(みしま)駅前で販売したところ、100個がたちまち完売した。三島特産のダイコンを主役に手が込んだ弁当で、予想以上の反応に学生は大喜び。弁当製造会社も「大ヒットするかも」と期待している。

(朝日2005.12.02. 朝刊)

(33) 持病の糖尿病で両脚を失い、2007年9月から自宅療養を開始。翌年11月、軽い

風邪をひいて食欲が落ちた。その直後、尻の仙骨あたりに500円玉くらいの床ずれの傷が。わずか1週間で、たちまち直径6センチほどに広がった。赤黒く変色した傷の真ん中に3センチほどの穴があき、骨が見えた。／急激な悪化に、担当のケアマネジャーと訪問看護師、かかりつけ医の江口武史さんと話し合い、床ずれ治療に詳しい堀田由浩師に往診を頼むことにした。(朝日2010.10.06.朝刊)

「たちまち」는 사태의 기동, 성립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 사태의 기동, 변화가 후속사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나타낸다. (32) 「予想以上の反応に学生は大喜び」, (33)은 겨우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되는 예상치 못한 「急激な悪化」에 대한 감탄, 놀람과 같은 의외의 감정을 나타내며, 그 예상치 못한 변화된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경우 모두 사용되고 있다. 즉 「たちまち」는 선행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상보다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변화한 것의 의외성을 나타내고 있다.

### 4.3 구어체와 문어체

사전적 설명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すぐ(に)」는 구어체, 「直ちに」는 공식적인 발언이나 보도에 사용되며 조금 딱딱한 문어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34) 1年更新の契約社員として働く女性から、こんな相談を受けました。「6年前から今の会社に勤めています。法律が改正されて、契約社員でも5年以上働いていると正社員になれると聞いたのですが、すぐに正社員になれるのでしょうか」…さて、この女性は直ちに正社員になれるのでしょうか。残念ながら、答えはノーです。

(朝日2013.01.07.夕刊)

(35) 道路交通法は、事故を起こした人が直ちに最寄りの警察署へ届けることを義務づけている。別府署の後藤信義副署長は「署員には平素からすぐに届けるよう言っている。指導を徹底し、再発防止に努める」とコメントした。

(朝日2010.05.10.朝刊)

(36) 感動与える歌を 甲府の酒折連歌賞で大賞／見出し

選考委員は「木の葉を運ぶ蟻の姿を見て、たちまち地面すれすれにしゃがんでいた子供時代にもどってしまったような振幅のある世界観。蟻と子供と大人が巡る片歌の中で、はるかな時間が隣り合うように描かれている」と価した。

(朝日 2013.02.11.朝刊)

(34)의 「すぐ(に)」는 여성이 상담자에게 상담하는 구어체에 사용되었으며, 「直ちに」는 상담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의 조금 딱딱한 문어체로 사용되었다. (35)의 「すぐ(に)」는 부서장의 발언에 사용되었으며, 「直ちに」는 도로교통법 법령문을 공식적으로 기사화하며 문어체로 사용된 예로써 공식적인 발언이나 보도에 사용되었다. 「たちまち」는 지문에서 볼 수 있는데 구어체에서 사용된 예는 거의 없으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36)과 같이 和歌를 문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라든가 회담기록 등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체적 특징을 갖는 세 부사의 사용빈도와 사용 경향을 보기 위해 朝日新聞의 기사와 현대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대한 예는 <표2>와 같다.

<표2> 朝日新聞 기사와 현대소설에서의 사용빈도

	朝日新聞 (聞蔵2003.2.15~2013.2.15)	小説 (現代小説151作品)
「すぐに」	8,934	2,275
「直ちに」 (「ただちに」)	1624 (直ちに: 949, ただちに: 675)	281(直ちに: 105, ただちに: 176)
「たちまち」	427	829

표를 살펴보면 「すぐ(に)」의 사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은 소설에서 구어체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기술인 신문기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直ちに」는 신문에서의 사용빈도가 소설에서보다 높은 이유는 공식적인 발언이나 보도 등에 자주 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たちまち」는 신문보다 소설에서의 사용수가 1.9배가 증가되어 이는 객관적 기술 중심인 신문에서보다 「たちまち」가 예상치 못한 상태의 급 변화에 대해 의외성을 강조할 때 쓰여 문예작품에서 그 사용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 5. 한국어 시간부사 ‘곧’ ‘바로’ ‘즉시’의 의미, 용법

본 장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를 일본어 시간부사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다.

### 5.1 공통점

일본어 시간부사 「すぐ (に) , 直ちに, たちまち」에 대응하는 한국어 시간부사에는 ‘곧, 바로, 즉시’가 있다. 그 의미를 사전의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세한국어사전』은 (연), 『우리말큰사전』은 (우), 『표준국어대사전』은 (표)로 표기하겠다)

<표3> 한국어 시간부사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
곧	(연) 1.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 1.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관) 금방, 바로 2. 머지않아 (관) 금방, 바로 (표) 【부사】 「1」 곧. 당장에. 「2」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바로	(연) 5.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주 가까이. (우) 3. (어디에 들르거나 시간을 끌지 않고) 곧장 ◆ ‘바로 : 곧’ 비교 (가) 바로- ..... 다른 것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므로, 시간적으로는 연속되는 두 일 사이에 다른 일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나) 곧- 연속되는 두 가지 일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가 아주 짧은 것에 대하여 쓰인다. (표) [I] 「부사」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
즉시	(연) 【부사】 [I] 곧. 당장에. (우) (부) 곧, 당장에 (표) 「명사」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한국어 시간부사 ‘곧, 바로, 즉시’는 일본어 시간부사와 같이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두 사태가 필요하며, 그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예 (37)~(39)와 같이 선행 사태에 ‘(-만)이면/되면/하면’ 등의 조건문을 동반하여 선행 사태로부터 시간을 두지 않고 후속사태가 단시간에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37) 여자들은 소나무가지를 모아서 불을 지피고 밤송이째로 불 속에 넣으면 곧 밤알 터지는 소리가 딱딱딱 하고 요란하게 난다. (말)
- (38) 반제품상태의 냉동식품은 가공새우 돈카쓰 만두 고로케등으로 기름에 튀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동아일보 1984.03.22.)
- 39) 당분간이니까 오늘 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나면 즉시 옮기지 뭐. (말)

이상과 같이 한국어 시간부사 ‘곧, 바로, 즉시’는 일본어 시간부사와 의미·용법적으로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이어서 차이점을 실례에 입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5.2 차이점

‘곧’은 선행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후속사태로 이어지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시한 일본어 용례는 번호를 그대로 적었다.)

- (15) …まず、デジタル機器はまともに作動しない。ビデオカメラのバッテリーはあっという間に消耗してすぐにバッテリー上がりを起こしてしまう。…人間の順応力はたいしたもんだと感心しつつ、コートも着ずにそのへんを歩いていたら、たちまち風邪をひいてしまったというおまけがついたのにはさすがに参った、というより、実に間抜けでありました。

(朝日2007.12.05. 朝刊)

(15)의 「すぐに」와 「たちまち」는 ‘곧’ 과 ‘바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행사태가 원인 이유, 계기가 되어 후속사태, 작용, 동작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특히 ‘곧’으로 해석될 때는 과정 속에서 짧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의 폭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40) 대만 "8세 소녀가 8kg" 모친 학대혐의 조사…머리를 부딪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데려왔다. 병원 측은 소녀에 대해 즉시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곧 숨을 거두고 말았다. (조선일보2014.05.02)

‘곧’은 병원에 ‘도착 → 응급처치 → 숨을 거두다’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응급처치를 한 선행 사태로부터 짧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 후 숨을 거둔 후속사태가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이어서 ‘즉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다.

- (17) いくら雪の景もこう苦しくはなさない。小池も小林も猿のような顔をして一言も声を出さない。そのうちに孝ちゃんが止ってこのさきに行っても風がひどいから帰りましようといったのでa.たちまち賛成した。後を見るといままで歩いてきた跡はb.たちまち吹き消されてい

る。…やっと下ってきてもう僅かになったので、板倉はまっすぐに急なところを下りたのはいいが雪が深いから c.たちまち桜の木の側で倒れた。

(板倉勝宣『五色温泉スキー日記』)

예(9)의 자연현상에 쓰인 「すぐに」와 (16)의 상태변화에 쓰인 「たちまち」는 ‘즉시’로 해석이 어려운 예이다. 예(17)에서도 인간의 의지적 행위인 a. 「賛成した」는 ‘즉시’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b. 「吹き消されている」는 자연현상, c.의 「倒れた」는 무의지적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즉시’로 해석하기 어렵다.

(18) 携帯電話の紛失、盗難には十分注意し、気づいたら直ちに、携帯電話会社の窓口と警察署に届け出が必要です。 (朝日2007.12.09.朝刊)

(19) 「不審物を発見した場合は、直ちに近くの係員にお知らせください」。 (朝日2011.11.22夕刊)

(21) 犬が公共の場でふんをした場合、飼い主が直ちに片づけなければならない——。 (朝日2000.10.13.朝刊)

일본어 세부사의 예문은 전부 한국어 ‘바로’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위의 예문과 같이 당연, 의뢰, 요구, 의무 같은 표현과 공기하여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연속행위를 나타내는 「直ちに」의 경우에는 ‘바로’ 보다는 ‘즉시’가 선택된다.

(41)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말이 나온 즉시, 또는 처음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실천하는 추진력 부분이 특히 그렇죠.(생략)” (여성조선 2012.02.27)

‘바로’와 ‘즉시’ 모두 연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데, ‘즉시’는 지체 없이 행위를 일으키는 실천이라는 후속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바로’는 선행사태에 주목해서 연속행위로 후속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곧’과 ‘바로’는 일본어 「すぐに, たちまち」와 같이 두 사태성립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을 특정한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반해, ‘즉시’는 「直ちに」와 같이 인간의 의지적 행위, 행동을 일으키는 동사와 공기하여 의지성을 갖으며, 위급상황 또는 긴급 상황에 사용되어 그 행위가 지체 없이 이

루어져야한다는 긴박함, 절박함 등이 나타나 주관적이다.

- (42) A씨는 a.즉시 소방서에 신고했고 119구급대는 곧 뱀을 생포해왔지만 뱀 출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육사는 "오히려 뱀을 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뱀을 발견하면 잡으려고하지 말고 b.즉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12.07.08)

예(42)를 ‘바로’로 해석하면 행동의 연속성이 부각되나 긴박감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체적 차이점으로 ‘바로’는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자유롭게 쓰이며, ‘즉시’는 일본어 「直ちに」와 같이 딱딱한 문어체 또는 공식적인 발언이나 보도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곧’은 문어체 뿐 만아니라 구어체에서도 사용되는데, 구어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측이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머지않아’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와 ‘즉시’의 유의어로서의 ‘곧’은 문어체로 사용된 경우이다.

## 6. 일본어 교육 관점에서의 일·한 유의부사 비교

일본어 시간부사 「すぐ(に), 直ちに, たちまち」와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시간부사 ‘곧, 바로, 즉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응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어떤 사태나 상황의 발생이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선행하는 행위·사태와 후속하는 행위·사태인 두 시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차이점을 보면, 첫째, ‘곧’은 「すぐに」와 같이 선행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후속사태로 이어지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을 나타내며, ‘바로’는 선행사태가 후속사태로 이어지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나 어떤 다른 일을 개입하지 않고 성립하는 연속적 행위를 나타낸다. ‘즉시’는 선행사태의 성립과 동시에 그 다음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연속적 행위를 나타낸다.

둘째, 초점의 차이를 보면 ‘곧’과 ‘바로’는 선행 사태의 성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즉시’는 일본어 시간부사 「直ちに」와 같이 후속하는 사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는 새로운 사태발생을 나타낸다. 또한 ‘곧’과 ‘바로’는 「すぐに」와 같이 인간의 행위동사, 의지동사등과 공기하며, 자연현상에서도 사용되는데, ‘곧’이 인간의 행위를 나타낼 때는 3인칭에 주로 사용된다.

셋째, ‘곧’과 ‘바로’는 두 사태성립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을 특정한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시’는 「直ちに」와 같이 인간의 의지적 행위, 행동을 일으키는 동사와 공기하여 의지성을 가지며, 그 행위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긴박함, 절박함 등이 나타나 주관적이다.

넷째, 문체적 차이점으로 ‘바로’는 회화체와 문어체에서 자유롭게 쓰이며, ‘즉시’는 딱딱한 문어체 또는 공식적인 발언이나 보도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곧’은 문어체 뿐 만 아니라 구어체에서도 사용되는데, 구어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측이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머지않아’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와 ‘즉시’의 유의어로서의 ‘곧’은 문어체로 사용된 경우이다.

일본어와 한국어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일·한 시간부사 대응표

구분	시간부사 내 용	일본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すぐに	直ちに	たちまち	
공통점	단 시간 내의 사태 발생·성립 선행하는 행위·사태와 후속하는 행위·사태인 두 시점 필요	○	○	○	곧, 즉시, 바로
		○	○	○	곧, 즉시, 바로
차이점	과정성	○	×	○	곧, 바로
	연속성	×	○	×	바로, 즉시
	인간의 의지적 행위	○	○	△	곧, 바로, 즉시
	자연현상	○	×	○	곧, 바로
	객관적	○	×	×	곧, 바로
	주관적	×	○	○	바로, 즉시
	구어체	○	△	×	바로, 즉시△
	문어체	○	○	○	곧, 바로, 즉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 유의부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시간부사 대응 표와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오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7. 나가기와 이후의 과제

본고에서는 첫째, 일본어 시간부사 「すぐ (に) , 直ちに, たちまち」의 의미, 용법을 고찰 한 후, 그 결과를 한국어 시간부사 ‘곧, 바로, 즉시’와 비교·대응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후 과제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실태 및 오용분석을 하여 실제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인에게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극히 당연한 「부사」는 오히려 연구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론화도 어렵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은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예를 들면 자신의 모국어와 대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일본어 연구로서 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 사려 된다. 이런 관점에서 「유의부사」 연구를 한층 추진하여 한·일 양국어의 부사 전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유의부사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일본어 교육현장에서의 부사교육에 기여하고 싶다.

### 【참고문헌】

- 金美燕(2008) 「時間表示の副詞の意味記述—「いきなり」「にわか」「だしぬけ」—」 『日語日文学研究』 第66輯, 韓国日語日文学学会, pp.1-5
- 李沢熊(2007) 「「あつという間」と「たちまち」の意味分析—ベースとプロフィールの観点から—」 『日本研究』 第7号, 高麗大学校, pp.143-158
- 国広哲弥(1982) 「たちまち・スグニ・ギウニ」 『ことばの意味 3』 平凡社, pp.146-153
- 江雯薰(2013) 「時間副詞に関する一考察—「即時性」を表す副詞を中心に—」 『比較文化研究』 No.105, pp.71-81
- 仁田義雄(2002) 『副詞の表現の諸相』 新日本語文法選書 3, くろしお出版, pp. 246-250
- 前田昭彦(2002) 「類義表現の意味論的分析—「さっそく」と「すぐ(に)」—」 『長崎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 第10号, pp.25-40
- 葉懿萱(2004) 「「たちまち」と「あつという間」の意味分析」 『日本語・日本文化研究』 第14号, 大阪外国語大学日本語講座, pp.37-48

### 【사전 및 용례 검색 자료】

- 『연세한국어사전』 (2006) 두산동아
- 『우리말큰사전』 (1992) 한글학회, 어문각
-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연구원(<http://stdweb2.korean.go.kr/main.jsp>)

北原保雄(編)(2003) 『明鏡国語辞典』 初版, 大修館書店  
小学館辞典編集部(編)(2003) 『類語例解辞典一使い方の分かる一』 新装版, 小学館  
西尾実・岩淵悦太郎・水谷静夫(編)(2000) 『岩波国語辞典』 第6版, 岩波書店  
飛田良文・浅田秀子(1994) 『現代副詞用法辞典』 東京堂出版  
森岡健二・徳川宗賢・川端善明・中村明・星野晃一(編)(2000) 『集英社国語辞典』 第2版, 集英社  
森田良行(1994) 『基礎日本語辞典』 第6版, 角川書店

국립국어원 한국어 말뭉치(<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조선일보(1985.01.01.~2016.03.01.)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기사검색(1980.01.01.~2016.03.01.)

朝日新聞 (「聞蔵」) 검색 (1985.01.01-2013.08.31)

靑空文庫, 그 외 현대소설(151작품)

논문 투고 일자 : 2016.03.17.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

 < 要旨 >
 

---

 日本語教育観点からの類義副詞の研究  
 - 「すぐ(に)」・「直ちに」・「たちまち」を中心に -

金英児

本稿では日本語の時間副詞のうち、類義関係の「すぐ(に)」、直ちに、たちまち」について意味・用法を考察した後、日本語副詞に対応する韓国語副詞と比較・考察した。その結果を表でまとめ、日本語教育現場で活用できるようした。共通点は、ある事態が短時間に発生、成立したと先行事態と後続事態という二つの時点が必要とすることである。相違点は、まず、「すぐに」と「たちまち」は過程性、「直ちに」は連続性を表す。次に「すぐに」は客観的、「たちまち」と「直ちに」は主観的である。最後に「すぐ(に)」は口頭語、「たちまち」が文章語、「直ちに」はややかたい文章語で公式な発言、あるいは報道に用いられる。日本語副詞に対応する韓国語副詞は 'God, Balo, Jeugsi' で、三語の相違点をみると、'God, Balo' は先行事態に焦点を置き、後続事態が短時間に起きたことを表し、'Jeugsi' は後続事態に焦点を置くため連続する行為により、新しい展開が始まる新しい事態の発生を表す。また、'God, Balo' は客観的、'Jeugsi' は主観的である。'Balo' は口語的、'God, Jeugsi' は文章語的である。

 A Study On the Japanese Synonyms of Temporal Adverbs from the  
 Viewpoint of Japanese Education  
 -Based on 'Suguni', 'Tadachini' and 'Tachimachi'-

Kim, Young-Ah

A comparative study was done on the meanings and usages of the temporal adverb "suguni" and its synonymous adverbs "tadachini" which "tachimachi", and compared them with their Korean equivalents. Japanese temporal adverbs have some features in common in that they imply an immediate realization of an activity and require a preceding event and its succeeding event. Their differences include the following: i) in terms of style, "suguni" is mostly used colloquially, while "tadachini" is usually used in formal statements or reports. ii) The three adverbs are differ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eceding event and its succeeding event in that "suguni" implies a succeeding event has taken place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of its preceding event. "Tachimachi" suggests the preceding event has caused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succeeding ev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adachini" connotes continuous succession of an activity between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events without any time gap. "Tadachini" implies a human activity, "tachimachi" is for a natural phenomenon, while "suguni" is widely utilized in both instances. Korean temporal adverbs corresponding to these words may be "god", "baro", and "jeugsi". As for their differences in meanings, the former two words imply an immediate realization of a succeeding event based on the occurrence of the preceding event, but "jeugsi", which focuses on the succeeding event, suggests an occurrence of a new event that causes a new development of the situation.